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0호
9월 14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종교다원주의 WCC·WEA 반대

제4차 정통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 개최

WCC·WEA 반대운동 연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 단체를 후원하고 대대적인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교회 대형교단 예상 통합 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정통기독교회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WCC·WEA 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사무총장 고정양 목사·준비위원장 변병탁 목사)는 지난 8월 24일(토) 오후 1시 서울 창계 전 한빛광장에서 '제4차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여름 폭염이 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회자와 성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여 정통기독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외치며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WCC·WEA 반대운동연대'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2013년에 시작된 WCC 반대운동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집회는 마라나타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변병탁 목사(살렘교회 대표)의 인도로 합심하여 뜨

겁게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송준길 목사(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원재 목사(합동 광주전남 노회협의회 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직 한 길 말씀대로의 복음을 전파해 온 이원재 목사는 이날 제 3:14-22 말씀을 본문으로 "타락한 종말시대의 한국교회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교회가 책임을 받은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기 때문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에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교회가 진리가 이익을 주지 않으면 입을 닫아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나라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며 "이제 한국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르짖어야 한다"고 전했다.

3부 전진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최하은 목사(그리스탄 총회장은 "침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나? 세상이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막아야 한다"면서 "싸워야 한다. 단순히 죄에 동조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뒤에서 방관하는 것도

안된다. 앞으로 나와라. 나와서 진리를 함께 외치자"고 독려했다.

이어 강주성 목사(뉴비전교회)는 한국 보수교회를 이끄는 합동교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강 목사는 반WCC로 대변되는 합동 측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합동 측은 일관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는 "우리 선배들은 과거 아무런 이유 없이 통합 측과 결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진리를 지키고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낸 것이다"면서 "하나 지금 WCC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통합 측이 WCC를 탈퇴했는가? 우리는 아슬픈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무너뜨려 버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다구나 통합 측은 수년 전 천주교와 정통기독교회의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교도적 교리, 제도, 전통을 가진 로마 가톨릭에 기독교회를 일치시킴으로 정통기독교회의 역사를 종식해 버렸다"면서 "우리가 다시 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앞장서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동·통합 연합기도회에 'WCC 이의제기'

“WCC 해결 없이 합동이 통합과 연합하는 것은 배교행위와 다름 없어”

예정통합(총회장 림인식 목사)과 예정합동(총회장 이승호 목사)이 지난 9월 1일(주일) 경기도 안양 평촌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장로교(합동·통합) 연합기도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무척 임한 강단교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한국교회 대형교단인 통합과 합동 양 교단은 분열 60주년을 기념해 '연합'을 꿈꾸며 기도회를 개최했으나, 60년 전 분열의 원인이 WCC 참여 논란이었던 점을 들며 일부 보수기독교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합기도회가 열리던 바로 그 시각에 평촌교회 건너편에서는 예정합동 뉴비전교회 강주성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 촉구집회'를 개최하고 WCC를 비판하면서 통합 측을 향해 WCC를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로부터 시작해 하나의 총회를



이어왔던 한국 장로교는 WCC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찬성하는 연동교회 측과 반대하는 승동교회 측이 지금의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섰다.

여기에 합동 측은 교단 총회에서 WCC 및 WCC 회원과는 교류할 수 없다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통합 측

은 여전히 WCC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합동과 통합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WCC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노래하며 기도회를 열자 합동 측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거부반응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간 강주성 목사 등은 "지금의 합동 측은 만든 선배들은 WCC 회원인 통합 측과 강단교류를 금지했었다. 그러나 후배인 지금의 합동 측은 어떠한가?"라며 "통합 측이 WCC를 탈퇴하길 라도 했나? 오히려 WCC 부산총회를 열고, 로마 가톨릭에 한국교회를 일치시키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연합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배신이자 WCC에 동조, 가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태풍 링링의 강풍에 교회지붕 뜯겨져 나가

도움의 손길 절실, 파주 문산 순복음본향교회

경기북지병회(회장 이경진 목사) 순복음본향교회(담임 강인덕 목사)는 지난 9월 7일(토)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대형급 태풍 링링의 강풍에 교회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 문향로 99-99에 소재한

순복음본향교회는 교역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내일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예수교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태풍피해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순복음본향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도와 후원으로 마음을 함께 하실 분들은 강인덕 목사(경기북지병회 재무, 010-9806-0691) 후원계좌 농협 215099-56-046260 앞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215099-56-046260



‘주님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조용목 목사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벧전 3:1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능력이 크게 하셨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거하는 고치를 짓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 불행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았으며 전위회복의 은총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둘째, 진실한 말,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말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거짓말, 무익한 말, 누추한 말, 일방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진실한 말, 유익한 말,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축복,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더하여서 풍족하게 하여주십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문제는 해소되고 해결되라고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

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 하였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태산 같을 지라도 문제에 짓눌려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러한 문제를 향하여 제거되라고 명령하십시오. 의심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십시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변성한 후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주신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 신앙적인 말버릇, 성도답지 못한 언어 습관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참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 소망, 축복의 말을 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문제는 해소되고 해결되라고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니다. 성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훌륭한 지도자 선발 위해 최선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 5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면밀한 자격검토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권우석 목사의 대표기도로 이어졌다.

권 목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사역자들이 선별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살게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다. 될 것”을 간구했다.

곧바로 이어진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적격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서류를 일부 보완토록 했다.

한편 2019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9월 26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 예배실에서 열린다.



한교연-미기총, 연합기도회 이어가

한미 교회,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자유와 교회 위해 부르짖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이하 미기총)가 지난 9월 3일(화)부터 제3차 한국교회 한미연합 특별기도회'를 갖고 있다. 기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기간 동안 양 기관에 속한 교회들은 △한국교회 본질 회복과 삼합(하합, 연합, 통합)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복음 통일 △정교 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수호 △국가의 안보·경제·사회·비판 역사관 수호 △한미 동맹 유지 및 한일 갈등 해소 △디아스포라 교회의 부흥과 안정 등을 위해 기도한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교연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다”며 “그러던 중 최근 미기총이 기도회 취지에 공감해 양 기관이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성경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전쟁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오늘도 모세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며 “한미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엘리야와 모세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자리 잡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가면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함께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미주한인 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인 이재덕 목사는 “한국교회와 함께 미국 전역의 4,500여 개 한인교회는 각 주별로 특별기도회를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9월 30일 오산리교회 실기념감식기도원에서 10시간 집중기도회도 갖는다.

“인권위해 동성애 문제 신속히 대처해야”

제4차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 포럼 및 총회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 포럼 및 총회가 ‘탈 동성애인권운동의 국제화와 유엔’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30일(금) 옹신시 수지수양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김규호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가 주제강연하고 자유로

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규호 목사는 주제 강연에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성중독의 일종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동성애를 경험해 봤던 탈동성애자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라며, “그럼에도 탈동성애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취급당하는 잘못된 인권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며, “진정으로 유엔이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면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뉴욕 유엔본부와 스위스 유엔인권이사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동 시집회를 통해 탈동성애인권보호를 촉구했지만 유엔은 탈동성애인권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엔이 탈동성애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진실을 전세계에서 함께 외친다면 분명히 유엔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중국 상품 중 성경은 관세 면제

미국통상본부가 화요일 발표, 기독교지도자들 일제히 환영

트럼프 행정부는 미 중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관세전쟁 중에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기독교 출판사들은 지난해에 미국의 서적출판물 수입 중 6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인쇄된 성경과 다른 기독교서적들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패닉상태에 빠졌었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미국의 통상본부(USTR)는 금년 9월과 12월부터 10%의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품목에 대해서 발표하고 성경은 관세부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USTR은 “성경과 다른 기독교 서적들은 관세와 10%의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크리스치니티 투데이>에 확인했다. 기독교 출판사들과 성경번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면서 성경이



나 다른 기독교 서적들에 대한 재정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규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

미국 기독교출판사의 회장 Ben Mandrell은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독교 출판계는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관세장벽으로 인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했었다”면서 “오늘 USTR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미국 남침례연맹 윤리위원회

Russell Moore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 인쇄된 성경을 관세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기쁘다”면서 “USTR의 발표는 많은 기독교 출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굿뉴스”라고 말했다.

남침례연맹 윤리위원회는 미국 성경의 대부분이 왜 중국에서 인쇄되고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백사 전이나 성경과 같은 책들은 얇은 종이에 수많은 글자를 인쇄하여 재분되어야 한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인쇄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인쇄회사를 가지고 있다. 2016년도에 중국은 1억5천만 부의 성경을 인쇄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성경을 수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많은 품질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미국의 끊임없는 성경수요에는 맞지 않은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목사, 한국원로목회자총연 대표회장에

“원로목회자들이 여생을 하나님 위해 살도록 섬길 것”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가 김재용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및 임원 임명식을 지난 9월 4일(수)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먼저 박장옥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박민영 목사의 대표기도, 박민서 목사의 봉헌기도, 이경애 목사의 성경봉독, 김진호 목사의 설교, 문세광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느 1:1-5)라는 제

목으로 설교한 김진호 목사 목사는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를 닫는 지도자도 있다. 느헤미야를 통해 미래를 여는 지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다”며 “그는 자신과 이웃, 민족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지도자였다”고 했다.

김 목사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 이처럼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자기 인일이나 행복에만 머무

는 이기적 사람이 아니며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재용 목사께서도 그런 미래를 여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회장 취임 및 임원 임명식은 김진호 목사의 사회로 김재용 목사의 취임사, 임원 임명장 수여, 김동권 목사의 격려사, 이선구 목사의 축사, 장학훈 목사의 폐회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재용 목사는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원로목회자들이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여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원로목사는 예성 총회장과 성결대학교, 성결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중장학회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미얀마에 ‘스고 카렌어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 성문교회 후원으로 9월말경 배포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1시 미얀마에 성문교회(담임 고동훈 목사)의 후원으로 ‘스고 카렌어 성경’ 4,5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미얀마 전체 인구는 약 5천 5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얀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미얀마는 뿌리 깊은 불교국가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 스고 카렌 부족은 모국어 성경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악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경제적 상황도 넉넉지



않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가득하다.

이번 기증식에서 성문교회의 고동훈 목사는 사요: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름다운 발견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성경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은 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 빛을 갖고 복음의 재역전을 하는, 복음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얀마 땅에 성경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전하였다.

한장총 여교역자협, ‘꿈나무’ 방문

미혼모자 위해 지속적 지원 모색키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교역자협의회의(회장 김희선 목사)는 지난 8월 27일(화) 미혼모자 지원시설 꿈나무(원장 박미자)를 방문해 시설 상황을 정찰하고 미혼모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희선 목사는 박미자 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선 목사는 “실제로 방문하여 보니 미혼모자의 지립 지원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미혼모들이 지립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혹은 직장을 다니며 매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에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에서도



후원에 힘을 쓸 것’임을 밝혔다.

박미자 원장은 “현재 꿈나무에는 5명의 미혼모와 5명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립을 위하여 돌보는 것이 우리 기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며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에서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을 요청 드린다”고 하였다.

남가주기교협, 장례문화세미나 개최

투헤븐선교회 대표 김현수 목사 초청

미국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이하 남가주기교협)는 지난 8월 25일(주일) 남가주명성교회(장혜진 목사)에서 김현수 목사(투헤븐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전국 한송 문화에 관한 세

미나를 개최했다.

김현수 목사는 기존 한국 교회 장례 문화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전했다.

김현수 목사는 “죽음 이후에 수의를 입히

고 몸을 줄로 묶으며, 꽃신을 신기거나 심지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불교의 율회 사상이 담긴 표현 등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기독교인조차 사비니즘, 유교, 불교적 장례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장례에 대한 전통과 관습이, 전국 한송으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목사는 이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전국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장례 문화가 성경적 부활의 전국 한송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상 가장 의미 있는 한결음” 생명사랑 밤길걷기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앞장서는 한국생명전환회가 주최한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가 지난 8월 31일(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4회째로 2004년 생명사랑마라톤으로 시작하여 매년 수만 명이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30여

만 명(누적 인원)의 참가자들을 기록했다.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만 34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현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31일 행사 당일 오후 4시부터 행사장 부스 오픈과 참가자들의 참가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식전 행사에서는 R&B 루키 NeD, 세로토닌 드림클럽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6시부터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썸 아저씨로도 유명한 방송인 김태진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성희 한국생명전환회 이사장의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생명사랑 7대 선언식, 삼성생명 기부금 전달식, 기수 조성모 송하예의한국생명전환회 홍보대사 임명식이 진행됐다.

한국생명전환회 이성희 이사장은 “이제는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야 한다”며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대회시를 전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 간 하계수양회 가져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는 지난 9월 1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월 4일(수) 오전 9시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하계수양회를 가졌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제주도로 향한 부산지방회 회원들은 제주도 일대 및 제주순복음한미음교회, 은혜의 동산 등을 탐방하며 영육간의 휴식을 통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에 힘쓰자!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7시 세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에서 9월 정기 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동천장로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세소망교회)는 환영사를 통하여 “가을장마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환란한 시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러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에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아산중앙침례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분회 고문 김소윤 감독(온양온천감리교회 원로)의 시 127: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현 시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써 죄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전하였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가진 2부 기도회에서 공동회장 박노

섭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민족복음화와 아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지도위원 박치영 목사(아산큰빛교회원로)가 기도하고, 아산시기독교연합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회장 이기연 목사(비전성결교회)가 기도하고, 아산시성시회를 위하여 고문 임기석 목사(배방감리교회 원로)가 기도하고, 성령등정책 및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가 기도하였으며 아산시지도자를 위하여 재부 이은혜 목사(은혜교회)가 기도하였다. 이어 가진 3부 보고회와 공지 및 특강에서

전 서강대 교수 박성기 집사(보석교회)는 “역사는 보수진보의 정반함으로 이어지는데 현 한국은 좌우익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연합회에서는 9월말에 예정된 연합회 추계부흥성회와 10월에 있을 연합회 체육대회를 안내하고 참석을 요청하였다. 또한 10월 3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순수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미스바구국성회에 오늘 참석한 모두는 물론 이웃에 있는 목회자 및 성도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나님 뜻과 사명에 충성하는 목회자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8월 22일(목)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 소재 순복음광양교회(담임 유용근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목사는 전 12:1-8 말씀을 본문으로 “늦기 전에, 늦기 전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총회와 교단임원과 정책위원회 목사님과 교단신학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들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

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 이태우 목사를 회계, 서기로 임명하였으며, 각종 행정 보고를 한 후, 순복음광양교회에서 준비한 애잔을 함께 나누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1시 울진갈릴리온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주전양

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종면 목사(순복음평화교회)의 기도과 이항구 목사의 말씀봉독, 그리고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도목사는 요일 5:13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도나 목회자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

함에 있어서 그 의미가 비성경적으로 해석되고 부분병하게 사용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성경적인 단어의 개념과 의미를 되새기자”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설교 후 감사의 예를 드리는 시간을 위해 회계 정인철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고 이석호 목사(대구은혜외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의 인도로 월례회가 진행되었고, 총무 이항구 목사의 총무보고와 회계 정인철 목사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예배와 회의의 모든 순서를 부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그 후 울진갈릴리온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식사 후에는 전경도 총고 분위기도 좋은 찾չ으로 이동하여 차와 디저트를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교단과 전북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8월 22일(목) 오전 11시 함리순복음교회(이광호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부

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최강욱 목사의 사회로 박종석 목사(백영전원교회)의 대표기도,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설교,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외전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은 특별히 예배 후 교단과 전북지방회 회원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부를 처리하였다. 월례회를 마친 후 함리순복음교회(이광호 목사 시무)에서 준비한 오찬과 티타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민족이 되길 기도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8월 19일(월) 오전 11시 주내순복음교회(담임 김홍광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부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기도, 지방회 재부 안재봉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경기지방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목사는 롬 1:24-2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아리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하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최금자 목사(순복음은

누리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의 광고에 이어 경기지방회장 정광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각부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였다.

강원 동·서 지방회 하나 되어 기도회 가져

강원 동·서지방회

강원동·서지방회는 지난 9월 2일(월) 양 지방회가 연합하여 사회전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목회환경 또한 어렵지만 농촌지역, 광산지역 어르신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원주생물교회(담임 박귀희 목사)에서 드린 예배는 박순용 목사(군선교위원장)의 취지설명으로 시작되어 진장길 목사(성지교회)의 사회로 최승수 목사(순복음소망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롬 33:2-3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지”란 제목의 설교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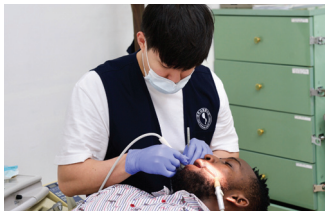


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유홍렬 목사(열린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은퇴원로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

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뒤 권용덕 목사(철원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전 회원들이 한 마음되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자주 함께 하며 기도로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양지병화가 될 것을 다짐했다.

외국인 근로자, 홀몸노인 등을 위한 의료봉사

건강상담, 혈액 검사 등 검진, 정성 어린 치료, 치료약 처방 제공



은혜외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외 국인선교회는 지난 8월 18일(주일) 수원성전 세계선교센터에서 외국인 성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및 홀몸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8월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많은 외국인과 노약자가 주일에

배에 참석한 후 선교센터 내 진료실과 치과진료소를 찾아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의료 봉사자들로부터 건강상담을 받고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비롯한 검진과 재활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생명의 말씀



김 장 수 목사

·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
· 예순교회 담임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

(렘 5:1)

리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고 가치가 소중하므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눈이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순회하며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악히 다 아시오니”(시 139:1-3)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 심판대에서 만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일제 압박 36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6.25전쟁의 잣

미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발전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대나라는 죄로 인해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3-4)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들려서 듣는 ‘hearing’과는 다른 ‘listening’의 뜻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나니라”(요 5:25)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점을 치고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면 멸망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의인은 국가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중요함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삼상 12:23).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출 32:32)

때가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렘 15:1)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기화로 주십니다. 나라의 장래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국가적인 문제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요인에는 확고부동한 용기, 확고한 계획성, 강한 책임감, 상세한 지식 습득, 호감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서울신대 제19대 총장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황덕형 박사가 취임했다. 지난 9월 3일(화) 오전 11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 대강당에서 서울신대 재학생들과 동문, 교수 및 교직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덕형 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형석 교수 정부에 쓴소리



올해 100세로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동아일보 칼럼에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인 태도를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자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정치, 경제 성과에 대해 지적했다.

살롱나비 지소미아 파기 비판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에 대한 논평을 지난 9월 8일(일) 발표했다. 살롱나비는 “지소미아 폐기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며 “한국은 ‘스스로 애치른 라인 밖으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비전다”고 했다.

한남대 미소로 인사 캠페인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지난 9월 2일(월) 오정동 캠퍼스 및 대덕밸리 캠퍼스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이벤트를 열고 학생 환영 행사를 펼쳤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덕훈 총장과 김태완 총학생회장, 교수, 직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반갑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생수를 나눠주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복원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과 내년 국내 총선을 앞두고 ‘반일(反日)’, ‘독일(獨日)’을 통하여 정치적인 유리한 국면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지역

의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한·미·일 3국 공조가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쪽에서는 심지어 이런 속내도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으로 드러나 뺨 맞은 미국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는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과 발전, 안보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에서 절대적이다. 비록 일본의 역사적 인식에서 상호 간 불협화음을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조가 무너지는 것을 북한은 오래전부터 원했던 것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갇간이 끊어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 하나만 끊어져도 다 날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을 두고 중국 쪽의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내심으로 반기는 모습이다.

또 북한 쪽도 지소미아를 ‘일사불약’으로 비유하며 ‘우리 민족의 1,000년 숙적이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선 반도 재정의 길을 열어준 미국협정,

전쟁협정’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것을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36개 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굳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반일(反日) 배일(排日)을 극대화하고 원미(遠美) 종중(從中) 친북(親北)을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인가? 반일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공조에도 틈이 가는 것은 명약관화(明瞭顯火)하고, 미국과의 상호 동맹이 깨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GPGuard Post, 휴전선의 감시초소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11월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속히 취소해야 한다.

한·미·일 3국의 견고한 공조와 동맹만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림을 우리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장양식) 1부
- ⑤ 반영합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목양자
평생교육

조선남 목사//예하성 목회자평생교육위원

역사의 주관자(신구약 중간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기간이다. 신학자들은 이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른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여 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 그 기간은 꼭 필요했다. 갈라디아서 4:4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딱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기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탄생과 전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었다.

구약 유대교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다. 물론 이방인들도 간혹 성전에 등장하긴 한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창 12:3)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떠한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막힌 담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졌다(엡 2:15).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아무 차별 없이 전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주로 한 종교였던 구약종교가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위한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신약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복족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 조국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운 소규모 공동체를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한다. 회당이 그들의 종교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회당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 유대인과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회당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황금어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것이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있다. 막 21:12-13; 막 11:15-18; 눅 19:45-48; 요 2:13-22) 그런데 성전의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과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다.

이곳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 즉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는 깨끗하게 유지했지만,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다. 비싼 권리를 받고 상인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준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생을 하며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이러저리 쫓겨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막 11:17)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원래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도를 위한 황금어장이

었다. 이들을 통해 초기의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 중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이다. 언어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아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지역이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 중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포함된다.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주전 250년경이다. 우선 모세오경만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전 150년까지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이 번역본을 흔히 칠십인 역이라고 부른다. 첫째, 칠십인 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둘째, 칠십인 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기록할 때 쉽게 구약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다. 신약성경을 기록하다가 구약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며 일일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칠십인 경을 옆에 두고 해당 부분을 베껴 오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편리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는 부정적 시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버린 시간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간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팸탄케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역사를 인도하셨다.

사)성민원 20+1주년 감사예배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자에 복지서비스 제공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나눔, 사랑을 실천해온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설립 20+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8일(주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된 성민원은 지난 21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4차원의 복지를 통해 영육이 행복한 복지 패러다임을 실현해 왔다.

신수진 목사의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최구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의 기도, 김남규 장로(군포기초무드뱅크 시설장, 정길훈 권사(성민원 상임이사)의 성경봉독, 성민원 소년소녀합창단 성민원합창단의 특송 합창무악찬양대의 찬양, 권태진 목사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삼상 7:12-17, 17:12-17) 제하의 설교, 신광준 목사(한교연 특별기도추진위원장)의 헌금기도, 마리아중앙단의 특송, 손평업 목사(법무법인 소망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기념식은 서다은 청년(성민원 법인홍보팀)의 진행으로 성민원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과 최용석 장로(성민원노인복지센터장)의 취지문 낭독, 20+1주년 영상보고, 홍미숙 시설장(성민원노인복지센터), 김정호 관장(군포시니어클럽)이 각각 운영보고를 했다. 이어 성

민원 직원 전체가 특송을 했으며,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심규철 위원장(자유한국당 군포갑 당협)이 축사를 전하고, 이어 순서자와 내빈이 나와 케이크 커팅과 축하시기를 가진 후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권태진 목사는 “성민원 설립 21주년을 20+1로 쓰게 된 것은 20년은 이미 지나갔으니 모든 성과와 자랑스러운 아 두고 이제 1년으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 출발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본분의 고백처럼 지난 20년의 지나간 시간 뒤에 새로운 출발대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설립 20+1주년을 맞은 성민원은 1998년에 군포제일교회 부설 기관으로 설립돼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9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개소하고 재가노인 복지를 시작했다. 이어 군포노인상담소(2000년)와 군포제일주간보호센터(현 성민원노인복지센터 2003년), 전국사다리 호스피스(2005년), 성민요양원(2006년)을 잇달아 개소했으며, 2012년에는 안양시로부터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



예장 ‘백석대신’ → ‘백석’으로 환원

장종현 목사 총회장에 추대

교단 갈등 극복과 정상화 향한 총대들의 바람 담아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9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제42회 정기총회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예장 대신 측과 통합 이후 해마다 논란이 됐던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했으며 신임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를 추대했다.

또한 제1부총회장에 류준배 목사(경기노회), 정로부 총회장에 안봉기 장로(성남노회)를 각각 추대하고, 총회장 지명으로 제2부총회장에 정영근 목사,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운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오우종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이에 신임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이제 총회가 영적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총대들의 교단 수습과 정상화 비관대로 장 총회장은

먼저 내부 결속을 나눴다. 장 총회장은 또 총회재판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상고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41회기 총회 훈란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재조사회하기로 하고, 총회특별재심원을 구성했다. 아울러 목사 징년을 75세로 연장했으며,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지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장·부총회장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증경총회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통해 총회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총회원 상호 간 SNS를 통한 비방, 불법통화녹음, 가짜뉴스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자 처벌과 징계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11월에 선교회원 필리핀 단기선교

세계선교협의회 제140차 월례회 연합교회에서 개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선협) 제140차 월례회가 8월 2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71번길 70 소재 연합교회(담임 전순임 목사)에서 개최하여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선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남복식 목사(주영광교회)의 인도로 김용현 목사(하나교회)의 대표기도, 김서영 목사(원방순복음교회)의 특송, 이혜자 목사(시온교회)가 창 49:22-26 말씀을 본문으로 ‘답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서 황정희 목사(풍성한교회)의 봉헌기도, 천근화 장로(영원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협의회를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총무 전순임 목사의 사회로 황정희 목사의 회원점명 13명 참석,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원보고 임양철장 김경주 목사(필리핀에 체류 중), 임양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목

사, 회계보고는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는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인건회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하다. △11월 17일 오후 6시 10분 인천공항 출국. -23일, 금요일 저녁 11시 15분 마닐라 공항 출국, 토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 2차 필리핀 단기 선교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관대로 운영이사회 가동하기로 했다.

연락처 : (032)651-9027, 010-2538-9026.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제1회 총회목회자 평생 교육 과정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6)

주최 : 사)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주강사



조용목 목사

-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이사장
- 세계하나님의성회 협의회 실행위원
- 한국신학회 이사장
-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책위원장



정상운 교수

- 전 성결대 총장(제5,6대)
- 현 성결대 신학부 교수
- 현 한국신학회 회장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 18일(금)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 (바울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전화 : 031)298-3739

대상 : 본교단 소속 원로목사,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접수 : 인터넷 신청 교단홈페이지 (www.aogk.org)

입금 : 회비 50,000원 / 농협 352-1649-7314-33 김용덕(목회자평생교육원)



강사진

김용덕 목사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원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교역자, 영상국장

박 건 목사

예일여자중학교, 전 교육 미가엘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침신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새김교회 담임

이연주 의원

국회의원무소속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
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
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년.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
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축》스펠라 세계선교회 창립예배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취임 및 김대진 선교사 파송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델리하우스(무궁화홀) 062-611-3333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2층



설교예배성회회장 신재영 목사



선교사 김대진 목사

후원 : CTS, 극동방송, 기독교타임스, 기독교호남신문, 목양신문

협찬 : 양산풍천민물장어 하우스

후원계좌 : 농협 355-0054-5708-63(소망교회)



국제선교회장
김해상 목사



국내선교회장
백영자 목사



학원선교회장
윤득주 목사



의료선교회장
김희태 대표



후원회장
최애자 대표



예능선교회장
구경란 목사



이미용선교회장
차연우 강도사



부회장
김승호 목사



사무총장
김몽수 목사



서기
한광희 목사



회계·재무
최애자 장로



감사
추혜진 목사



감사
조길수 목사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_ 스펠라 세계선교회 010-2611-6794(사무총장김몽수)

예하성 부흥사회 힐링수련회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8월 29일(목)~30일(금) 1박 2일 간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에서 힐링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 첫째날 오후 2시 30분, 녹동순복음교회에 도착한 23명의 회원들은 먼저 예배로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김건수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사 30:15~19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은 요동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예배 후에는 나로호 발사대를 견학하고, 바베큐 저녁식사와 티타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 소록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북성교회를 방문하고, 이어 소록도중앙교회(김기

진 회장 권면)에 방문하여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으며, 거금도를 견학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번 수련회의 숙박 및 식사는 모두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섬겨주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교제와 협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록도에서 김정복 목사의 순교비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9차 전국사모단합대회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 모시는 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분주하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분주한 손길을 접고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고
또한 성령으로 재충전받아 섬김의 사역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하여서
제9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김귀순 -

주제: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

일 자 | 2019년 10월 21일(월) ~ 23일(수) 2박 3일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120)

대 상 | 예하성 산하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사모님들

등 록 비 | 없음

준 비 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개인용품,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문 의 | 회장 김귀순 사모(010-8973-4250)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후원 및 사모회비 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재무, 010-8372-0091)

예하성 제9차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순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정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직전회장·감사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예하성 제9차 전국사모회 임원진

1부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과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이정희 사모
(순복음은혜의강돌교회)

서기



김숙자 사모
(세종순복음교회)

부서기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원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회계



유순희 사모
(여광순복음교회)

부회계



설경희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2019년도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일정표

시간	요일	10월 21일(월)	10월 22일(화)	10월 23일(수)
07:00~08:00		그 이름 아름다운 사모들이여~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예루살렘성전)	조식	조식
08:00~09:00				짐정리
09:00~10:00			이동	나눔
10:00~11:00			성지탐방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모원)	찬 양
11:00~12:00			이동	폐회예배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접수 및 숙소 배정	이동	새롭게, 활기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14:00~15:00		찬 양	여행 (하늘공원)	
15:00~16:00		개회예배 조용목 목사님 (교단 정책위원장)		
16:00~17:00		영상시청과 O.T (지방회별 소개 등)		
17:00~18:00		휴식	이동	
18:00~19:00		석식	저녁식사	
19:00~20:00		찬 양	교제 및 휴식	
20:00~21:00		강의 : 김성근 목사님 (노원한나라은혜교회)		
21:00		기도회 후 휴식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한국-호주 선교 130주년 기념 특집다큐

호주 선교사들의 살아있는 선교 이야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한국-호주선교 130주년을 맞아 특집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을 제작했다.

10년 전, 한국-호주 선교 12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서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선교 역사와 의미를 담아냈다면, <은혜의 증인들>은 생존 선교사들의 영상인터뷰를 중심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느꼈던 한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겪었던 생생한 선교 현장과 그 안에 흘러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사들의 육성 고백으로 담아냈다.

130년 전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호주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

그의 뒤를 이어 한국을 품은 129명의 호주선교사들 해국과 개척 사이에서 혼란했던 시대, 복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은둔의 땅 조선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가까이 목숨을 내놓았던 최초의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 데이비스 선교사는 아직 기독교가 소개되지 않은 부산을 향해 복음을 들고 떠났지만 풍토병과 폐렴으로 부산 도착 다음날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호주 선교부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묻힌 곳 부산, 경남을 그들의 선교지로 삼았다. 그렇게 시작된 130년 한국 선교의 길! 부산을 중심으로 전주, 창원, 마산, 거제, 통영 등 부산·경남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헌신했던 호주 선교사 130명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 살아있는 그들의



신앙고백이 한국-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공개된다.

복음전파, 교육, 의료, 여성구제, 계몽, 인권운동...

한국의 근현대사를 꿰뚫는 살아있는 선교이야기

국내 최초 복음화율을 보이는 곳, 한국 전쟁의 피난처이자 길 가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낙후되고 가난했던 부산·경남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특히 여성과 아동, 한자를 위해 선교를 진행했던 호주선교부.

호주선교사들은 부산을 거점으로 마산, 진주, 거창, 통영, 울릉도 등 경남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의료부분에서 큰 공헌을 했고 진주지역의 공창제 지운운동, 고아를 위한 실수학교운영, 한센 병 환자를 위한 상애원 설립 등 여성과 고아, 가난하고 열병은 이웃들을 낳은 모습으로 섬겼다. 한국 전쟁 직후 부산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한故헨리 매켄지(한국명 매켄지)와 함께서된 매켄지(매켄지)는 25년여 간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했고 산업선교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과 복음전파에 힘썼던 리처드 우튼 선교사는 故김대중 前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한 구명위원회를 조직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는 헨리 매켄지, 캐서린 매켄지 외에 31년간 부산 일신병원에서 사역한 바바라 마틴, 농촌계몽과 복음전파에 힘썼던 존 브라운, 신학생을 길러냈던 알란 스튜어트 선교사, 한국 노동자와 민주화운동을 돕다가 추방당한 스테판 라켄더 선교사 등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그들의 선교역사를 만나본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국과 호주! 이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는 2019. 9. 13. 금요일 오후 3시에 CTS 기독교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제52차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 정기포럼

〈무궁화와 한민족〉 주제로 윤 사무엘 박사 특강

중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유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문화를 통한 동포사랑운동을 펼쳐 온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회장 김철수 박사)는 지난 8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1박 2일간 제52차 정기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고대근동학을 전공,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재미교포 윤 사무엘 박사(올리벳신학교 총장)를 초청,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태극기,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특강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다.

동회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 7월 아동문화가 김철수 박사에 의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연길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국조선족소년보>와 해방 이

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를 통한 민족동질성을 상호 인식하고 최초의 민간인 교류의 물꼬를 터 28년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홍콩강성 목단강시에 거주하던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친필인 고 김강석 여사를 찾아 생활비를 지원하고 매년 중국 동북삼성 현지를 방문 그동안 70여 회 차례에 걸쳐 자라나는 동포후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과 미국에 유학을 추천하고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포럼에는 미국 글로벌대학교 염봉운 총장, 대전대학교 명예교수인 한상수 박사, 미국 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인 김철수 박사, 국제힐링치유문화원 대표 정찬해 박사, 전 나주시 시의원 김노금 작가 등이 참석했다.



정인숙 목사 신작-죽음에서 건져 살게 하신 주님사랑이야기

죽음에서 건져 살게 하신 주님사랑이야기 올곧이 담겨

한자들에게 희망이되는 치유와 회복이야기-정인숙 신작 '일어나 걷게 하소서'

단 한 줄의 글쓰기조차 허용되지 않는 통증, 온 몸을 쇠시슬로 찰진 감아서 지물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꼼짝달랴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죽음 말고 선택할 있는 다른 길이 없었던 정인숙 작가는 마지막 주님의 선택길에서 만난 '생명의 길' 인 예수그리스도를 윤색하지 않고 진술하고 담백하게 간증하고 있다. 병과 치료,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과의 준비 그리고 싸움을 사실적 측면에서 기록한 '일어나 걷게 하소서'의 간증집 한 장을 고요히 넘겨본다(원집자주)

죽음만 응시하는 사랑하는 당신도,

죽음조차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치병으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마지막 죽음을 놓고 빈민할 즈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나타났다.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길이였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니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정인숙 목사(수원빛으로교회 담임)가 '일어나 걷



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출판하게된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내가 전하는 이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글쓰기를 중단할 것이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죽음과 마주해보면 세상에서 죽기살기로 매달렸던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눈이 시리게 죽음만 응시하는 사랑하는 당신도, 죽음조차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운명이 하도 혹독해서 지금도 꿈꾸는 것만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니

예수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셨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는 10년 가까이 바깥출입을 못 하고 방 안에서 살았다. 20대에 류마티스관절염에 걸려서 근육이 오그라들고 모든 관절들이 망가지고 굳어버리는 바람에 나루처럼 한자리에서 지고 먹고 쓰면서 살았다.

처음에는 병을 고쳐야 한다는 열망이 뜨거웠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치료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치료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치료할 길이 없었다. 나는 TV, 라디오, 일간지들을 방에서 추방시켜버렸다.

간중-음 : 010-5452-1661

육군학생군사학교, 세례식 거행

예성 시냇가푸른나무교회 후원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 세례식이 시냇가푸른나무교회(예성, 신용백 목사)의 후원으로 지난 8월 25일(주일)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ROTC 학군후보생 1,317명이 참석한 이날 세례식에서는 기존 세례 신청자 173명과 세례식 당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가칭: 복전자)들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추가로 세례를 받게 된 인원 159명까지 합쳐 총 33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해마다 분무대교회를 방문하여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는 금년에는 단순히 세례

식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신청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복전자 71명, 찬양단 53명, 안수 및 봉사자 23명 등 총 147명의 인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음전도용 카드와 성경책과 간식 등을 마련하여 예배 참석자들과 세례를 받은 학군 후보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한편,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담임 신용백 목사는 군종 목사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정보사령부·담임목사를 역임하는 등 군선교에 앞장서 왔다.



홈페이지 : www.ucts.org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나눔’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달린다

기아대책, 10억 상당 버스 광고 후원 받아

“오늘을 한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보 세요” 서울 시내 80개 정류소에서 배한성 성우의 목소 리로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광고회사 ㈜그람플레이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버스 광고를 후원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그람플레이 스와 함께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광 고 후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그람플레이스는 버스내 외부 및 음성광고 등 약 10억 원 상당의 광고를 기아대책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300여 대에 부착되는 내 외부 광고가 9월 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음성광고는 지난 7월 말부터 시 작돼 서울역, 종로, 강남 등 시내 주요 지역 80개 정류소 에서 송출된다. 광고는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임섭 ㈜그람플레이스 대표는 “상업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NGO의 선한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협약소감을 밝혔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귀한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광고 후원 협약식

9월 2일 오후 3시



백석문화대 도서관,우수기관선정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도서관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한 '2018년 전 국대학교도서관 시범평가'에서 우수기관(사립/전북대 학2년제 A그룹, 1위)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 상했다.

이번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는 전국 382개 대학도서관 을 대상으로 △도서관 발전 기반 및 사서역량 강화 △도 서관 운영 △도서관 경영의 단기적 성과 △도서관 경영 의 장기적 성과에 대해 균형성과평가(BSC, Balan ced Score Card)를 기반으로 총 40개 정량지표를 진단했으 며 대학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눠 총 6개의 우수대학이

선정됐다.

백석문화대 도서관은 사립/전북대학(2년제) A그룹 (4,000명 이상) 49개 대학중 최고점을 받으며 수상의 영 예를 안았다.

백석문화대 도서관은 △독서클럽 △독서인증제 △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사서추천도서특별전 등 다양 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해 독서 장려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안 인근지역 대학들과의 공동이용 대출 및 열람서비스 지역주민 대상 자료 및 시설개방 등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젯더미 속에 핀 전도열매

대대로 불교집안인 저희 가정은 부친이 스님이었고 3대 독자로 태어난 저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팔매술, 냄비주이, 구두뒹이, 소매치기, 거지생활을 하 면서 지냈습니다 또 성장한 후에는 위안 말기환자로 절 망 중에 고통 받고 해매던 중 병원 전도팀으로부터 복음 을 듣고 그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로 개종하였습니다.

전도팀의 인도로 대구 칠곡호림산기도원 허경필 원 장 목사의 안수기도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을 체험한 저는 송신대학교원을 졸업한 후 잠시 군선교 사 명을 감당하다가 교회 없는 지역을 다니면서 10개 교회 개척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교회 10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25년 전 10번째 교회인 속초시민교회를 마지막으로 21년 만에 인조로 후 임마누엘기도원 교회 원목으로 섬기며 다문화가정 센터, 교도소 무연고자, 출소 후 쉼 터지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밤, 나라 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던 중 개가 하도 짖어서 나와 보니 큰 불이 나 있었고, 교회, 속소, 사무실, 바닐하우스 가 타고 교회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급하게 뚝만 겨우 탈출한 저에게 남은 것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2018년 11월 22일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가족세 트전도컨퍼런스를 열었고, 지역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 들이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김지훈 목사(준천오순절

기도원 원장)는 찬양인도 봉사를 하러 왔다가 큰 은혜를 받고 현재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열심히 세트전도로 계 속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시하고 있습 니다.

교도소 무연고자가 출소 후 갈 곳이 없고 환영하는 지도 없을 때 우리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직장에 취업이 되고 가정도 이루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 니다. 또 개진 가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됩니다.

시민교회 은퇴할 때 사촌 고급아파트를 팔아서 투자 하여 새운 사역지가 모두 젯더미가 되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때 제일먼저 박영수 목사와 사모가 찾아와 기 도해주고 헌금으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어 큰 힘이 되 었습니다.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교회

원목 문종복 목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장상천길242

속초임마누엘기도원 교회

033)636-4080, 010-3323-4080

후원계좌 기업은행 010 4323 4080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가정 밖 청소년 지원위한 포럼 개최

월드비전, 자립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필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 난 8월 2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확대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2019 월 드비전 시각지대 위기아동(가정 밖 청소년) 공모사 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진행한 '전 국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전국 청소년 쉼터 실태 조사'는 1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됐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의 확대와 사회적 지지 확산을 목표로 전국 129개 쉼터 중 99개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실태 를 파악하고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개 선해야 할 역할을 제안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제윤경 의원, 정춘숙 의원, 임종성 의원, 여영국



의원, 월드비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주최했다.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김범구 서울시립청소년이 동쉼터 동북권 소장은 "2010년 이후부터 청소년 쉼 터 실태 조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번 조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현황과 실태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TS 병영선교 특별집회 ‘내 모습 이대로’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펼쳐진 특별결신집회!

CTS가 추석을 맞아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한 결신 집회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8월 29일(주일), CTS는 '다음세대 선교 비전 실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 군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5,000여 명의 입소 훈 련병을 대상으로 병영선교 특별집회 '내 모습 이대 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군 대! 특히 육군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비기독장 병이 70%에 이를 정도로 비신자들의 예배 참여가 높다.

이에 CTS는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부흥을 이끌기 위해 훈련병들을 위한 병영 특별집회를 마련, 기독교 병들의 군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비기 독장병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특별결신집회에는 CTS 인터넷서널의 찬양 선교사 손재석 목사를 비롯해 강성훈 전도사, 지미선, 심상종 교수, 황국명 목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비신자들도 군대를 오면 알게 된다는 '실로암' 찬 양을 시작으로, 매 찬양이 이어질 때마다 훈련병들의

열광적인 참여와 반응이 예배의 분위기를 사뭇 뜨겁 게 했다. 특히 이날 손재석 목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 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특 별 메시지로 전했다. 이어진 '결신의 시간'에서는 연 무대교회에 첫발을 디딘 장병들 중 8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긴 <CTS 병영선교 특별집회 '내 모습 이대로'>는 민족 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특 집방송된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 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온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듯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 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 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 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 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한국교회 기도의 날

모이자!
부르짖자!
찬송하자!

2019.10.3(목)
PM 12:00~14:30

시청역 8번 출구 앞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44-2)

- 주 최 | 한국기독교 단체 및 유관기관
- 주 관 |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 참여대상 | 전국 모든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 단체(지역 시군구 기독교 연합) 및 개인 참여 가능
- 참여신청 | 한국교회연합기도회 홈페이지(<https://pack.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9월 20일 이후 접수)
- 문 의 | Tel: 010-2528-9182(한국교회 기도연합) / Fax: 0504-409-9182 /
E-mail: pack01025289182@gmail.com / 카카오톡: 010-2528-9182(한국교회기도연합)

한국교회기도연합

옆의 QR코드를 찍으시면
포스터 / 전단 / 현수막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용서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난 상황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계획안에서 쓰임 받고 있음을 알고
요셉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때 내면이 성숙해지는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입니다.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평안함의 시작은 지금까지 계속되다.



매일 5.2명의 환자 장기이식 기다리다 숨져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2.9%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운

동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9월 둘째 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하여 생명나눔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쳐오다 2008년부터는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救)하자'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행사 및 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다.

특pecially 올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에는 서울만이 아닌 대전,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장기기증을 알리는 행사를 펼쳤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서

울로7017 장미무대에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의 기념사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생명나눔에 앞장서 온 9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왕홍주, 이대호 씨, 생존 시 신장기증인 김근목, 백장전 씨, 심장이식인 이종진 씨, 신·췌장 이식인 송범식 씨,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및 재능기부자 이진희 씨, 김 엘다별이 씨, 김조이 군이 그 주인공이다.

왕홍주, 이대호 씨는 지난 2010년 각각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정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왕 씨의 아들 故 왕희찬 군은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뇌사로 세상을 떠나며 간, 신장, 각막 등을 기증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했다.

또한 이대호 씨의 아들 故 이태경 군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신장, 폐, 간, 신장 등을 기증하며 6명의 생명을 살렸다. 두 사람은 기념식 무대에 올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몫까지 이식을 받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모든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이 이식을 받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들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하자 뇌사자로부터 2000년 신·췌장을 이식받은 송범식 씨와 2012년 뇌사자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은 이종진 씨가 무대에 올라 장기기증이라는 송고한 결정으로 생명을 살려준 유가족들을 끌어안으며 이식인들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표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사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멜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사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라는 말은 로마시대로부터 전래되어 서양에서 금과옥조로 준수되는 너무나 중요한 격언이다. 이제는 동양까지도 전파되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말을 되뇌이면서 전쟁대비에 철저하다. 6.25전쟁 이후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전혀 없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하나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의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소미아 종료가앞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위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한반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빌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최대의 패자는 한국이고 최대 승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무부 한일담당관 출신 오바 민타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누구보다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충격적일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건설적 접근방식과 맞지 않고, 이번 결정으로 미국으로부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라고 했다.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 공동 방위를 책임지는 군사동맹이며, 군사동맹의 핵심은 연합 훈련을 토대로 한 연합 전력에 있다. 그러나 카리콜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이 폐지되면서 한·미 동맹은 사실상 훈련 없는 폐이퍼 동맹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가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오직 관료 한사람의 임명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이끌어 오고 있는 현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안요소를 먼저 해결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평생을 앞뒤 다른 이중생활을 해 온 사람에게 매달려서 국정을 그르치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부르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일이다.(약1:5)

한·일 갈등을 토론수업으로 해결?

한·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 위험 등에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 정유, 철강, 화학, 기계 등 11,000개 이상의 품목에서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18일 각급 학교에 한·일 갈등 문제를 토론 수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참고 자료로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용산강제노동피해자 노동자상 등 체험학습 장소,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 강제노동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수업 사례, △여성가족부

가 제작한 위안부 피해자 교수 학습자료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토론 수업에 앞서,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정확한 토론을 위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나 이를 바르게 가르칠 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은 편향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 갈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서울시 교육청이 예시한 정쟁이나 토론 자료는 대부분 반일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역사 이해에 대한 깊이가 부족한 학생들이 객관적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겠는가? 넷째는 일선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간 첨예한 갈등 정쟁을 부각시키므로, 자칫하면 반일 역사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은혜와진리교회(담임목사 조종목) 카이노스 뮤지컬 공연장에서

말씀 그대로를 공연으로... GNTC 창작뮤지컬 「알파와 오메가」를 보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있기까지에는 우리의 부모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는 분명히 생명의 동기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 어떤 절대적 가치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을 총합하여 자존(自存) 하시고 불변(不變)하시며, 유일하고 영원하신 분, 또한 인간이 위로 상승하려는 이상(理想)의 교차로에 계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인류 역사를 배후에서 감독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절박한 일에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있다. 그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한 척의 배가 망명대해를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고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암초에 부딪쳐 전복 직전에 직면했다고 가정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 그 모두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겠는가? 엄마 아빠를 부르거나 애인이나 친구를 부르기에 앞서 인간의 힘을 초월한 절대적 힘을 요구할 것이며, 존분도 원 없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실 이도 주신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유한한 우리의 육신적인 생애를 어떻게 마음속에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잠시 빌려 받은 생명의 내용을 어떻게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각자의 개인사(個人史)에서 가장 소중한 문제이자 숙제일 것이다.

독일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프롬”은 현대를 일컬어 신(神)도 죽었다. 아버지도 죽었다고 슬픈 곡조로 갈파했다. 아버도 이것은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이상을 갖되 허황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야 한다. 그 현실에 깊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생의 자양분을 안겨주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인간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의 중요성과 삶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뮤지컬 「알파와 오메가」에서 잘 살펴 주고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며 창조자이고 구원자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언과 심판,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뜻한다.

뮤지컬을 보고 감동과 은혜를 받는 중요한 장면과 인상 깊었던 연출과 연기에 대해 기록한 것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 이번에 보여준 뮤지컬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무대를 마음껏 할 용하며 물이 흐르듯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관객(성도)들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공연이었다. 사랑과 배신, 액션, 눈물의 연기가 살아있는 극적인 무대였고, 무대와 효과,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못해 신비감을 주었다.

GNTC 뮤지컬 단장이시며 본 작품의 희곡을 쓰신 김양숙 사모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자리를 안내해 주셨다. 단장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객석 성도들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다. 공연장은 기대감으로 적막이 흘렀다. 서서히 전율이 흐르는 음악이 깔리고 막이 오르며 무대는 암전이 된다.

조명이 밝아지며 사이에 들어오는 무대는 짜임새가 있고 웅장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연출에 있어서 어려운 중의 하나가 바로 무대장치라 할 것이다. 설계 여하에 따라서 작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관건임이 되기도 한다.

에덴동산 무대 세트는 시대적인 공간 교류에 감응케 하기에 충분했다. 무대 중앙으로는 선악과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먹음직스러웠다. 양옆으로는 여러 과일나무가 싱그럽고 아름답게 자리 잡고 아래쪽으로는 각종 꽃으로 에덴동산을 연상케 했다. 거기다가 노래와 안무 특수 조명과 효과로 신비감을 더해 주었다.

리프트 위에는 나무로 제작된 방주를 설치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기대감을 주었다. 완성된 무대 좌우에는 제2의 영상 막을 설치하여 6인칭의 전지창조를 기존 무대와 동영상의 사용함이 연출가의 세심함이 엿보인다. 무대는 어두워지고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웅장한 무대와 영상으로 시작된다. 불안하고 이글거리는 무기가 튀어 나올듯한 장면이 음악, 음향과 동영상 위에 조형으로 정중중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음악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다가 다시 안정된 음악이 깔린다. 그러다가 갑자기 역동적인 음악으로 바뀐다.

테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끝나고 배경음악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이 되어 울려 퍼진다. 무대는 밝아지며 내려이전이 된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를 첫째 날이 나라」

이렇게 시작된 창조는 둘째 날에 공장,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에 살 모든 식물을 만드셨다. 넷째 날은 낮과 밤의 별들(해, 달, 별)을 만드셨으며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공중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흠을 빚어 처음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다.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닮은 영적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들은 모두 너를 따를 것이지만 너는 너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본 뮤지컬에서는 인간 본래의 사명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날도 하와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었다.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숲속에는 포도, 사과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이 열려있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설치된 에덴동산은 밝은 조명이 들어아름다움을 더했다. 시냇물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은은히 깔린다. 아담은 밝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며 짐승들은 안무를 한다.

「내가 모든 동물들에 이름을 지어 주리라」 짐승들이 한 마리씩 아담에게 다가서면 「이 동물은 특정한 근육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 동물을 호랑이라 칭하리라」 밝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아담과 짐승들의 연기와 사자, 기린, 코끼리, 곰, 코알라, 원숭이, 사슴 등 많은 동물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경쾌한 음악과 효과음이 합세하여 무대를 더욱 아름답고 신비감을 준다.

아담과 하와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절제 있는 대사로 에덴동산이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진 연기는 참으로 놀라운 명품 연기였다. 넓은 무대를 자유자재로 채워가며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연기는 참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에덴동산은 아담과 하와와 각종 짐승 속에 평화로 가득했다. 갑자기 음악과 조명이 바뀌면서 사악한 사탄이 동산으로 등장한다. 옛적 권력과 금은보화로 단정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며 후회스러운 독백과 괴상하고 음침한 웃음, 그리고 노래로 심정을 드러내며 마음을 조인다.

농익은 연기와 독특한 액션과 웃음을 관객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담

과 하위를 시기하여 유혹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어느 날 에덴을 거니는 하와에게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므로 돌아본 즉 뱀 한 마리가 하위를 쳐다보고 알랑거리며 유혹했다. 이렇게 하와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라며 설득하며 먹으라고 했다. 하와는 특수 분장과 의상을 입은 뱀에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지도 하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 과일을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삼편)에게도 주어 그도 같이 먹게 되었다.

실과를 먹고 나니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몸이 벗을 줄을 알고 부끄러와 나뭇잎을 엮어 하리에 감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본래의 사랑과 평화를 뒤로한 채 진노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위험을 알리는 음향과 효과 음악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아담과 하와의 숙달된 사랑 연기는 참으로 좋았다.

연극은 점점 무르익어 은혜가 넘치는 막과 장에서는 관객(성도)들의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숨 가쁘게 진행된다. 관객(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은혜와 분노의 양면 속에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되 나무는 잣나무로 하고 송진을 녹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게 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예고하고 설득하며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노아와 식구들을 미쳤다고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왔다.

이런 대조의 장면이 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보란 듯이 음란과 술로 방탕해 갔다. 믿음이 좋은 노아와 그 가족과 세상 사람들 간의 대조를 이루며 무대를 공포감으로 만들고 각자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무대 위에서는 노아와 자식들은 한동안 배를 건조하고 집과 가족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배를 만드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지부들이 아끼는 재물을 내놓으며 갈등을 느끼는 장면이 너무 좋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조된 방주 안에 명한 대로 전 가족과 가족을 각종 종류에 따라 압수한 생식 짝을 지어 실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아!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아서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며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흐흐흐」 하나님 말씀대로 지상에는 큰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방주 문을 두드리며 달려 달리고 아우성이었다. 40일 낮

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류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무릇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채소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 것이니라」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여 저희가 그러하겠나이다」

방주 문이 열리고 동물들은 나와 경쾌한 동작과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노아의 가족들은 제일 먼저 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노래가 진행된다. 다속의 연악을 민으며 다짐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연기가 하늘로 오른다. 이어서 조명이 바뀌며 근엄한 하나님 음성이 예언이 되어 울려 퍼진다.

「내가 너희의 연악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네 아들들에게 복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에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대를 가로질러 화려한 대형 무지개가 뜬다. 노아의 가족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

나님 감사합니다」 관객(성도)들은 일부 일어나고 앉은 자리에서 「아멘」을 외치며 박수로 화답한다. 그 위에 깔리는 음성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밝은 음악이 고조되고 조명이 꺼지면서 서서히 뮤지컬 「알파와 오메가」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연극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행위로 표현하는 예술이자 기술이다. 기독교 연극은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극(예배극)이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다. 뮤지컬 알파와 오메가는 근래에 보기 드문 정통 연극이었다. 작품을 보고 나니 참으로 좋은 결작품을 보았다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TV 달린트이며 연극배우인 한인수 장로 또한 오랜 만에 기본 좋은 뮤지컬을 보았다고 칭찬하였다. 연출자와 연기자들의 대성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용 전개는 물론 인물 성격을 잘 드러내고, 동작과 대사에서 대조를 이루며 친밀하고 서막한 불균형에서 절정을 이루는 연출이 돋보였다. 특수영상, 세트, 음향, 효과, 조명을 통한 사실적이며 상징적 장면을 연출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정한 뮤지컬 연기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연기와 액션으로 관객과 함께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디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뮤지컬이었다. 한인수 장로와 나는 더 큰 무대에서 공연을 올려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주고받았다.

동작전 대시 무대에서 위치까지 자유자재로 정형하며 위기와 공포 속에 메시지를 담아내는 연기자들이 자랑스러웠다. 연기에서 어렵다는 노력이나 웃음을 토해내는 절도 있는 독백, 모두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수 분장과 의상을 입고 동물 연기를 한 연기자들과 아역 배우들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이 시대의 황폐한 정신적 사막 지대를 풍성한 옥토로 바꾸는 영혼의 구원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뮤지컬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 뮤지컬 「알파와 오메가」를 보고 자유의지의 정의를 살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상열 목사 약력

- 사필문학으로 등단
-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 이사장
- (전)서울예술대학교 학장
- (전)비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 선교국대(성명, 대표 / 연출
- 로빈나 문화마을 대표
- 저서: 〈기독교와 예술〉, 〈연극예술론〉, 〈예술선교와 교육〉, 〈예배 예술의 이론과 실제〉, 〈교회성경과 예술선교〉, 〈예술과 신학〉, 〈요한계시록 강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선상의 소리〉, 〈신학대 총장들의 칼럼집〉 외 다수

이상열 목사